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사와 존재사를 구별했는가?:

『명제론』 11장을 중심으로

강성훈*

【요약】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에서 “Homer is a poet”으로부터 “Homer is”가 추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einai(be) 동사의 계사적 용법과 존재사적 용법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범주론』에는 “Socrates is sick”으로부터 “Socrates is”가 추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이것이 『명제론』의 구절과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는 문젯거리다.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Homer is”에서 ‘esti(is)’가 정언적 존재개념인 existence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두 구절의 양립불가능성은 여기에서 ‘esti’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호메로스가 시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그가 살아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는 것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참이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자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Homer is a poet”에서는 ‘is’가 주어에 부수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einai(be)가 일종의 비정언적 존재 개념을 표현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주제어】 계사, 존재사, 명제론 11장, 범주론 10장, 비정언적 존재

* 서울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58-A00019).

I. 들어가는 말

일찍이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들이 *be* 동사가 존재사로 사용될 때와 계사로 사용될 때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구의 존재론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런 혼동의 연원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론한 바 있다.¹⁾ 현대의 고대 그리스 철학 연구자들은 대개,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고대 철학자들이 이러한 초보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이들이 취하는 전략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전통적인 대응 방식은 고대 철학자들이 계사와 존재사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한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의 구절들을 분석해서 사실은 그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텍스트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분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찰스 칸이나 레슬리 브라운 등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된 대응 방식은 일종의 일괄타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be* 동사에 대응하는 고대 그리스어 *einai*의 경우에는 현대 언어인 *be* 동사의 경우와 달리 존재사로서의 용법과 계사로서의 용법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자의 명확한 구별을 전제하고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라고 주장한다.²⁾

그런데 흔히 존재사와 계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혼동을 일으켰다는

1) John Stuart Mill, *A System of Logic*(Harper & Brothers, 1882), 97.

2) Charles H. Kahn, *Essays on Being*(Oxford, 2009)은 40년 이상 지속된 그의 *einai*의 연구를 결산하며 주요논문들을 모은 논문모음집이다. Leslie Brown, "The Verb 'To Be' in Greek Philosophy: Some Remarks", in *Language. Companions to Ancient Thought*: 3, ed. S. Evers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등에서 브라운은 칸의 작업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칸은 브라운이 발전시킨 연구 결과를 적극 수용한다.

혐의가 제기되는 고대 철학자들은 보통 플라톤이나 파르메니데스 정도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그러한 비판이 가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사실, 매우 흥미롭게도, 존 스튜어트 밀이 존재사와 계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추론으로 거론하는 예들과 실질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예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잘못된 추론의 예로 언급하기도 한다. 밀은 “Socrates is just”로부터 “Socrates is”, 즉 “Socrates exists”가 함축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is’에 애매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이에 덧붙여 “A centaur is a fiction of the poets”이라는 말은 바로 켄타우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이 문장으로부터 “A centaur exists”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을 한다.³⁾ 이와 비슷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에서 “Homēros esti poiētēs (Homer is a poet)”로부터 “Homēros estin (Homer is)”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⁴⁾ 또 『소피스트적 반박』에서는 “to mē on esti doxaston (Non-being is thinkable)”에서 “to mē on estin (Non-being is)”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⁵⁾ 그러니까 밀은 역설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구절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로서의 *einai*와 계사로서의 *einai*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더 있으며,⁶⁾ 이러한 구절들에서 정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로서의 용법과 계사로서의 용법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면, 일단 밀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비판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경우 밀의 비판에

3) Mill, *A System of Logic*, 96-7.

4) 『명제론』 11, 21a25-8. “Homēros estin”에서 ‘estin’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 것은 본 논문의 중심 주제 중 하나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estin’을 중립적으로 ‘is’라고 해 놓고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5) 『소피스트적 반박』 5, 167a1-2. 『명제론』 11, 21a32-3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6) 『분석론 후서』 2권 1장, 『명제론』 3장 등이 그런 구절들이다.

대한 두 번째 대응 방식, 즉 고대 그리스어 *einai*의 경우에는 존재사로서의 용법과 계사로서의 용법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밀 식의 비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견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모두 그의 논리학적 작품들에 등장하는 구절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고 있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그리스어 화자들이 전-이론적 상태로 *einai*의 그러한 의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구절인 『명제론』 11장의 구절을 중심으로 그가 정말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결론은 『명제론』 11장이나 그 밖의 그러한 구절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작업이 *einai*의 계사적 용법과 존재사적 용법을 구별하는 작업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양자의 명확한 구별의 잣대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칸이나 브라운의 생각을 공유한다. *einai*가 통합성을 가지는 개념이었다는 데에는 생각이 같지만, 그때의 통합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칸이나 브라운, 또 이들 외에도 독자적으로 *einai*의 통합적 의미 지평을 모색하는 라이크나 백 등과⁷⁾ 우리는 생각을 달리한다.⁸⁾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 논문은 *einai*의 통합성을 공격하는 입장들에 맞서

7) Allan T. Bäck, "Avicenna on Existenc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5(1987): 351-67, Allan T. Bäck, *Aristotle's Theory of Predication*(Brill, 2000), L. M. de Rijk, *Aristotle: Semantics and Ontology*, vol 1 & 2(Brill, 2002).

8) *einai*의 통합성에 대해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구도는 강성훈, 「고대 그리스어 'einai'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 비정언적 존재 개념으로서의 '있음'과 'einai」, 『서양고전학연구』 48(2012): 77-115에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서)⁹⁾ 칸이나 브라운 등과 잠시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 정도라고 하겠다.

II. 있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있음(to on, einai)’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요한 모토 중 하나이다. 『형이상학』의 여러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einai’라는 말이 사용되는 용법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구별한다. 5권 7장과 6권 2장에서 그는 부수적으로(kata sumbebēkos) 있음, 그 자체로(kath' hauto) 있음, 범주들 중 하나로 있음, 참으로 있음, 잠재적으로 있음과 현실적으로 있음 등의 구별을 한다.¹⁰⁾ 7권 1장과 14권 2장 등에서는 위의 분류에서 범주들 중 하나로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것은 범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고 주장한다.¹¹⁾ 4권 2장이나 11권 3장에서는 “있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지만, 하나와 관련해서 (pros hen) 이야기 된다”는 유명한 주장을 하면서, 실체이어서 있음, 실체가 겪는 것(pathē)이어서 있음, 실체로 가는 과정(hodos)이거나, 실체의 소멸, 결여, 성질이어서,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나 낳는 것이어서, 실체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에 속해서, 혹은 이들 중 어떤 것의 부정이어서 있음 등으로 있음을 분류하고, 이들 모두가 실체와 관련해서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¹²⁾

9) John Malcolm, “Some Cautionary Remarks on the ‘Is’/‘Teaches’ Analogy”,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31(2006): 281-96의 레슬리 브라운에 대한 공격이 필자가 아는 가장 최근의 일이다. 우리는 (역시 지면 관계상) 말콤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논의가 그의 공격에 대해서도 대답이 되기를 희망한다.

10) 『형이상학』 5권 7장 1017a22-b9; 6권 2장 1026a33-b3. Cf. 『형이상학』 9권 10장 1051a34-b3.

11) 『형이상학』 7권 1장 1028a10-21; 14권 2장 1089a7-12. Cf. 『형이상학』 5권 28장 1024b13-16.

12) 『형이상학』 4권 2장, 1003b4-12; 11권 3장, 1061a7-10.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책 내에서 있음의 다양성을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흥미로우며, 그가 이렇게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들 각각의 분류의 차이와 상관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¹³⁾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einai*의 용법 구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einai*의 계사로서의 용법과 존재사로서의 용법의 구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영어의 *be* 동사에 대해서도 현대 철학자들이 단순히 계사와 존재사의 구별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한 기호 논리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 철학자/논리학자들은 *be* 동사가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호화 될 수 있다: 1. 존재(existence) - Zeus is: $\exists x(x=a)$, 2. 동일성(identity) - Plato is Aristocles: $a=b$, 3. 계사(copula, predication) - Socrates is pale: Fa , 4. 함축(generic implication) - Man is an animal: $\forall x(Fx \supset Gx)$. 이 네 가지 구별은 어떤 의미에서는 술어 논리학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e* 동사의 다의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흔히 언급되는 것은 여전히 존재사와 계사의 구별이다.¹⁴⁾

정리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현대의 논리학자/철학자들이나 모두 *be* 동사에 해당하는 말의 용법에 대해서 다양한 분류를 하지만, 현대 논리학자/철학자들에게는 핵심 구별인 존재사와 계사의 구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아리스토텔

13) 이러한 다양한 분류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핵심 구별로 생각하는 것이 범주들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며 그 중에서도 실체 범주와 나머지 범주 사이의 구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실체-속성 형이상학 확립의 계기가 되며, 논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주술구조 논리학 확립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

14) 동일성의 *be*와 계사로서의 *be*의 구별도 현대 논리학에서 중요한 구별이지만, 이 구별이 존재사와 계사의 구별만큼 많이 언급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레스가 『명제론』이나 『소피스트적 반박』에서 ‘x esti F (x is F)’로부터 ‘x esti (x is)’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a) 이 두 문장 형식에서 ‘esti’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b) 설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있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언급할 만큼 중요성을 갖는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지 않았거나,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Ⅲ.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

그런데 간과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x esti F’와 ‘x esti’에서 ‘esti’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것이 바로 그가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논리학자/철학자에게는 ‘x is F’와 ‘x is’에서 ‘is’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이 곧바로 ‘is’가 전자에서는 계사로 후자에서는 존재사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정은 그보다 복잡하다.

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x esti F’로부터 ‘x esti’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도 있다는 것이다. 『범주론』 10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있는 경우에는(ontos men Sōkratous) ‘소크라테스가 건강하다’는 명제와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는 명제 중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겠지만, 그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mē ontos de) 양쪽이 모두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¹⁵⁾

15) 『범주론』 10장, 13b14-18.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은 경우에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는 명제가 거짓이라면,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는 명제가 참인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명제도 참이어야 할 것이다. 즉, ‘x esti F’라는 형식의 명제로부터 ‘x esti’라는 형식의 명제가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이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함께 거론한 것은 아마도 이런 구절에 근거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와 계사를 분명하게 구별했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범주론』의 이 구절과 『명제론』 등의 구절들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지는 그 자체로 문젯거리이다. “있지 않은 것이 생각될 수 있다”는 명제로부터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명제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소피스트적 논박』 등의 구절은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있다”는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명제론』의 구절과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로부터 “소크라테스가 있다”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함축하는) 『범주론』의 구절은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범주론』과 『명제론』의 양립불가능성 문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제일실체와 관련한 『범주론』의 입장과 『형이상학』의 입장 사이의 양립불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데 비해서, 『범주론』과 『명제론』 사이의 양립불가능성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 사이에서

16)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nosein(아프다)’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추론이 ‘x is F’라는 형식의 명제로부터 ‘x is’라는 형식의 명제로의 추론은 아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 동사가 einai와 분사의 결합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예컨대, 『형이상학』 5권 7장 1017a 28-31), ‘nosein’은 ‘nosōn einai’로 대체될 수 있다. 『범주론』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눈이 멀었다(tuphlon einai)’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einai가 등장하는 예를 들고 있기도 하다(13b25-7).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연구자들 중에서도 그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¹⁷⁾ 해결책을 시도한 몇 안 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해결책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¹⁸⁾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들 중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IV. 『명제론』 11장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입장들은 대개 『범주론』의 구절은 그대로 두고 『명제론』의 구절에 대해 이러저러한 해석을 가함으로써 양자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것들이다. 『명제론』 1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논의가 그 자체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것과 관련해서도 큰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논의를 우선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명제론』 1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술어들의 결합에 대해서 논의한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종류의 술어들은 결합해서 하나의 술어가

17) J. L. Ackrill, *Aristotle: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Oxford: Clarendon Press, 1963), 111; Christopher Kirwan, *Aristotle: Metaphysics Γ, Δ, and E*, 2nd ed.(Oxford: Clarendon Press, 1993), 118.

18) 이 문제를 주제적으로 다룬 논문으로 Michael V. Wedin,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of Singular Sentences”, *Phronesis* 23(1978): 179-196과 William Jacobs, “Aristotle and Nonreferring Subjects”, *Phronesis* 24(1979): 282-300이 있고, Manley Thompson, “On Aristotle’s Square of Opposi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62(1953): 251-265, Russell Dancy, “Aristotle on Existence”, in *The Logic of Being*, eds. Simo Knuuttila and Jaakko Hintikka(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6), 49-80, Bäck, “Avicenna on Existence” 등도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되지만 어떤 종류의 술어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창백하다는 것과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합쳐서 그가 창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누군가가 훌륭한하다는 것과 그가 구두장이라는 것을 합쳐서 그가 훌륭한 구두장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20b31-37).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결합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동일한 것에 두 술어가 부수적으로(kata sumbebēkos) 서술되는 경우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경우에는 양자가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이다(21a7-10). 어떤 사람이 창백하고 교양이 있는 경우에 창백함이나 교양이 있음은 모두 그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가 ‘창백한 교양이 있다’, 혹은 ‘창백하게 교양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그 창백한 것이 교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이라고 하더라도¹⁹⁾ 이때 ‘교양이 있음’은 창백한 것으로서의 창백한 것에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백한 것이 마침 사람이어서 그에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한 술어가 다른 술어에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경우라는 두 번째 조건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예에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특별히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다.²⁰⁾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결국 훌륭한 사람이면서 구두장이인 사람이 왜 바로 그런 이유로 훌륭한 구두장이라고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두 번째 조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그럴 듯한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창백한 교양이 있음’(leukon musikon) 따위의 표현은 애초에 결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서 ‘창백한

19) 우리말에서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이상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서 형용사가 그냥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20) Ackrill,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146-8에서 바로 그러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람(*leukos anthrōpos*)'이나 '훌륭한 구두장이(*agathos skeuteus*)', '두발 달린 동물(*zōion dipoun*)' 등은 얼마든지 결합해서 의미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합된 표현들 중에서, 결합요소가 각기 따로 서술되는 것이 둘이 결합해서 서술되는 것을 함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이다. 위의 예에서는 물론 '창백한 사람'과 '두발 달린 동물'은 따로따로 서술되는 것이 결합된 서술을 함축하는 경우이고, '훌륭한 구두장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결합된 술어들 중에서 결합의 관계가 '부수적'인 경우는 따로따로의 서술이 결합된 서술을 함축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함축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부수적(*kata sumbebēkos*)'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에서 부수적이라는 말, 즉 '그 사람이 창백하다'에서 창백함이 그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된다고 할 때의 '부수적으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반드시 창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¹⁾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창백한 사람'이나 '훌륭한 구두장이'나 '두발 달린 동물' 모두에서 결합관계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 사람이 창백하다'가 반드시 참인 것이 아니듯, '그 구두장이가 훌륭하다'나 '그 동물이 두발 달렸다'도 반드시 참인 것이 아니다. '그 창백한 것이 교양 있다'의 예에서도 논점은 창백한 것은 항상 교양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의 논점은 창백한 것이 창백한 것으로서 교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창백한 사람', '훌륭한 구두장이', '두발 달린 동물'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부수적으로(*kata sumbebēkos*)'라는 말은 언제나 '그 자체로(*kath*)'

21) 그리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수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표준적인 사용 방식 중 하나이다. 『형이상학』 5권 30장을 참조하라.

hautō)’라는 말과 대비를 이룬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수적인 것은 그 자체로인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의 성격은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대적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부수적으로’라는 말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형이상학』 5권 30장 1025a13-33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수적으로’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 것도 이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것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속하지 않는 것이 대비될 때, 필연적으로 속하지 않는 것이 ‘부수적으로’ 속한다고 규정되지만,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들 중에서 본질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대비될 때는 본질에 속하지는 않는 것이 ‘부수적으로’ 속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과 그 자체로인 것의 대비가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술어의 결합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부수적’이라는 말의 새로운 의미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G인 F’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F로서의 G’가 따로 있는 경우, F가 ‘F로서의 G’를 가지고 있어서 ‘F가 G다’라고 이야기되면 G가 F에 그 자체로 서술되는 것이고, ‘F로서의 G’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G(haplōs G)를 가지고 있어서 ‘F가 G다’라고 이야기되면 G가 F에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즉, ‘훌륭한 구두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이 따로 있는 경우, 구두장이가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두장이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훌륭하다’는 구두장에게 그 자체로 서술되는 것이다. 이 때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두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²²⁾ 하지만 그 구두장이가 인간으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어서, 즉 단적으로 훌륭해서(haplōs agathos) ‘그 구두장이가 훌륭하다’라고 하면 이때 ‘훌륭하다’는 구두장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단적인

22)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경우에도 그 구두장이가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일은 아니다. 즉,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두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구두장이가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꼭 구두장이일 필요가 없고, 목수일 수도 있고 화가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그 구두장에게 ‘훌륭한 구두장이’라는 결합된 술어를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그 구두장이가 구두장이로서 훌륭한 경우에만 그에게 ‘훌륭한 구두장이’라는 결합된 술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²³⁾

이에 비해 ‘그 사람이 창백하다’나 ‘그 동물이 두발 달렸다’의 경우는 ‘창백함’이나 ‘두발 달림’이 이런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서술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이나 ‘동물로서의 두발 달림’이 따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하지 않은데,²⁴⁾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창백하다’나 ‘그 동물이 두발 달렸다’에서 술어가 주어에 (지금 논의하는 의미에서는) 부수적으로 서술되지는 않는다.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이 따로 있는 경우, ‘저 사람이 창백하다’에서 창백함은 언제나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이라는 의미에서 서술되는 것이므로, 항상 그 자체로 서술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이다.²⁵⁾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이 따로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창백하다’에서 창백함이 그 사람에게 서술되는 방식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그 자체로 서술됨’과 ‘부수적으로 서술됨’의 대비를 아예 적용시

23)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에 따라, 지금 단락과 다음 단락, 그리고 이와 연관된 본장의 마지막 단락은 오해의 소지가 적은 방향으로 서술을 수정하였다. 지적에 감사드린다.

24) 두발 달렸다는 것이 애초에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동물로서의 두발 달림’이 따로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예를 들어 두발 달린 자전거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동물로서의 두발 달림’이 따로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겠고,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동물로서의 두발 달림’이 따로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의 경우, 우리말 번역어인 ‘창백함’으로 생각하면 ‘사람으로서의 창백함’이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leukon’은 밝은 색 일반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사람으로서의 leukon’이 따로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들이 따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우리의 논의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25) 마찬가지로 ‘동물로서의 두발 달림’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연적으로 동물이다.

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창백함이 그 사람에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서술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서술된다고 할 수도 없다.²⁶⁾

‘훌륭한 구두장이’에 대한 논의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술어 중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술어의 결합이 곤란하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데(예를 들어, ‘창백한 창백함’이나 ‘사람인 동물’ 따위. 21a16-18, cf. 20b39-21a3), 이 부분은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자.²⁷⁾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 결합된 술어를 단적으로, 혹은 단독으로(haplōs)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논의한다(21a18 이하). 예를 들어 창백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창백하다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덧붙여진 술어에 반대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모순이 따라 나오는 경우’는 이것이 곤란하다. 예컨대 ‘죽은 사람’의 경우, ‘사람’이라는 말에 ‘죽음’과 모순이 되는 ‘살아 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허용 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창백한 사람의 경우는 이것이 가능한 경우이고, 호메로스의 예는 바로

26) 흥미롭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인 『범주론』 10장의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의 논점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은 경우, 건강함과 아픔의 대비를 소크라테스에게 아예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픈 것도 아니다. 지금의 논의는 또한 Ackrill,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147-8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도 제공해준다. 아크릴은 누군가가 구두장이이면서 키가 180인 경우, 그를 키가 180인 구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와 훌륭한 구두장이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이 경우 ‘구두장이로서의 키가 180임’은 따로 없기 때문에, ‘키가 180임’은 ‘구두장이’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서술되지도 않고 부수적으로 서술되지도 않는다.

27) 다만, Jacobs, “Nonreferring Subjects”는 그 이후의 논의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후의 논의 맥락을 완전히 놓쳤다는 점은 지적하기로 하자.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예로 제시된 것이다. 이 부분(21a23-8)은 원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ὅταν δὲ μὴ ἐνυπάρχη, ἀληθές. ἢ ὅταν μὲν ἐνυπάρχη, αἰεὶ οὐκ ἀληθές, ὅταν δὲ μὴ ἐνυπάρχη, οὐκ αἰεὶ ἀληθές· ὡς περ Ὀμηρός ἐστι τι, οἶον ποιητής· ἄρ' οὖν καὶ ἔστιν, ἢ οὐ· 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γὰρ κατηγορεῖται τὸ ἔστιν τοῦ Ὀμήρου· ὅτι γὰρ ποιητής ἐστιν, ἀλλ' οὐ καθ' αὐτό, κατηγορεῖται κατὰ τοῦ Ὀμήρου τὸ ἔστιν.

[반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이다. 아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참이 아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호메로스는 어떤 것, 예컨대 시인인(시인으로 있는) 경우처럼 말이다.²⁸⁾ 이런 경우, 그가 있기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있다’는 호메로스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된 것이다. 여기에서 ‘있다’는 그 자체로가 아니라 그가 시인이기(시인으로 있기) 때문에 호메로스에게 서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해석의 관건은 여기에서 ‘부수적으로’와 ‘그 자체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이다. 그리고 『명제론』 11장의 논의 맥락에서 보자면, ‘훌륭한 구두장이’에서 ‘훌륭함’이 부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때와 같은 의미로 ‘부수적으로’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호메로스가 시인이라고(시인으로 있다고) 해서 그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구두장이라고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마침 구두장이여서 ‘그 구두장이가 훌륭하다’라고 할 때, ‘훌륭함’은 ‘구두장이’에 부수적으로 서술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비해 어떤 사람이 구두장이로서 훌륭해서 ‘그 구두장이가 훌륭하다’고 할 때에는 ‘훌륭함’이 ‘구두장이’에 그 자체로 서술된다고 이야기

28) 우리말에서는 물론 ‘시인으로 있다’가 아니라 ‘시인이다’가 제대로 된 번역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에서는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런 표현을 함께 붙여놓는다.

할 것이다.

이제 그 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선, ‘그 구두장이가 훌륭하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문장이 문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훌륭함’은 그 사람에게 그 자체로 서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단지 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 보자. 이 경우는 단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 사람이 훌륭한 구두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때 ‘훌륭한 구두장이다’라는 술어의 부분으로 ‘훌륭한’이 그 사람에게 서술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사 ‘훌륭한’이 그 사람에게 서술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훌륭한 구두장이’의 부분으로서 부수적으로 그 사람에게 서술될 따름이다. 따라서 이때 ‘훌륭한’이 그 사람에게 서술된다고 해서 단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 ‘훌륭함’을 ‘있음’으로, ‘구두장이’를 ‘시인’으로 대치시키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서 ‘시인으로 있다(시인이다)’나 단적으로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까지 제시된 해소의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V.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하려는 시도들

이제 우리는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들이 어떤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지를 논의할 수

있다.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하는, 어찌 보면 가장 간편한 방식은 애초에 양립불가능성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이콥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러한 해결책의 극단적 형태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제론』 11장 21a24-8에서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있다’가 추론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²⁹⁾ 제이콥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덧붙여진 술어에 반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눌 때 ‘포함되어 있다(enuparchein)’는 말을 ‘본질 안에 들어 있다’는 전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예는 시인임이 호메로스의 본질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의 예라는 것이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호메로스는 어떤 것, 예컨대 시인인 경우처럼 말이다. 이 경우 그가 있기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가 본질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호메로스는 어떤 것, 예컨대 시인인 경우처럼 말이다. 자 그럼 그는 시인이라는 것이 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³⁰⁾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인임’이 호메로스의 본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메로스가 시인이라는 것은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제이콥스는 21a18이하의 논의에서 결합된 술어를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제가 바뀐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대단히 작위적이고 엉뚱한 번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러셀 댄시도 제이콥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있다’가 추론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29) Jacobs, “Nonreferring Subjects”, 286-9.

30) Jacobs, “Nonreferring Subjects”, 288. 편의상 해당 원문을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다. ὅταν δὲ μὴ ἐνυπάρχη, οὐκ ἀεὶ ἀληθές· ὡπερ Ὀμηρός ἐστὶ τι, οἷον ποιητής· ἄρ' οὖν καὶ ἔστιν, ἢ οὐ·

주장한다.³¹⁾ 하지만 댄시는 제이콥스와 달리 논의의 맥락이 결합된 술어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³²⁾ 댄시는 단순화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소 복잡한 논의를 하는데, 지면 관계상 그의 논의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단순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순화해서 남는 것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화해서 남는 것이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경우란, 그의 논의를 종합해서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단순화한 것만 가지고도 원래의 결합된 술어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이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구두장이다’에서 ‘소크라테스는 훌륭하다’로 단순화하는 경우는 ‘소크라테스는 훌륭하다’만 가지고 복원하는 경우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사람이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창백한 사람이다’에서 ‘소크라테스는 창백하다’로 단순화하는 경우는 ‘소크라테스는 창백하다’만 가지고 복원을 하는 경우 ‘소크라테스는 창백한 사람이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화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제 ‘Socrates is pale’에서 ‘Socrates is’로 단순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어떤 것이 be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be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이다.³³⁾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서 그 자체로 be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그가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Socrates is’만 가지고 복원을 하는 경우, ‘Socrates is pale’이 아니라 ‘Socrates is a man’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단순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Socrates is a man’에서 ‘Socrates is’로 단순화하는 것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단순화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다.³⁴⁾

31) Dancy, “Aristotle on Existence”, 65-7.

32) 사실 논의의 맥락이 이러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제이콥스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러한 맥락을 놓치지 않는다.

33) 『형이상학』 7권 4장 1029b13-14의 유명한 구절 “ὅτι ἐστὶ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ἐκάστου ὃ λέγεται καθ’ αὐτό”을 댄시는 이렇게 번역한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be’라고 남겨 놓는다.

덴시는 이런 논의를 『명제론』 11장에 적용시켜서 ‘Homer is a poet’에서 ‘Homer is’로 단순화하는 경우는 단순화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Homer is a poet’이 ‘Homer is a man’처럼 그 자체의 서술이 아니라 ‘Homer is pale’처럼 부수적인 서술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의 덴시의 논의는 나름 그럴 듯하고, 또 ‘그 자체로’와 ‘부수적으로’의 대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들을 대비시킬 때의 표준적 대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앞선 논의에서 이 대비를 좀 특수한 것으로 본 것 보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더 장점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범주론』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아프다’의 경우도 이런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의 서술이 아니라 부수적으로의 서술이다. 따라서 덴시의 논의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아프다’에서 ‘소크라테스가 있다’로의 단순화도 단순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덴시는 물론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범주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프다’에서 ‘소크라테스가 있다’가 추론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호메로스가 시인이다’에서 ‘호메로스가 있다’의 추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덴시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점은 ‘호메로스가 있다’는 것이 추론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 원리에 의해서 추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덴시는 우리의 핵심 구절인 “호메로스는 어떤 것, 예컨대 시인이다. 자 그러면 그는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가 있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 나오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³⁵⁾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이콥스처럼 논의의 맥락을 비틀고 그에 따라 번역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서 ‘호메로

34) Dancy, “Aristotle on Existence”, 50-59.

35) 원문을 다시 적어보자. ὡςπερ Ὁμηρος ἐστὶ τι, οἷον ποιητής· ἄρ' οὖν καὶ ἔστιν, ἢ οὐ; 필자의 생각으로는, 덴시는 여기에서 καὶ가 전달하는 뉘앙스를 간과하고 있다.

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있다'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호메로스 이야기가 예로 등장하기 바로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추론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의 결과물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창백한 사람에 대해서 '창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면, 호메로스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있다는 것이 댄시의 단순화 원리에 의해서 추론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추론이 되더라도, 추론이 되기만 한다면 호메로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없다.

댄시는 자신의 해결책이 이전의 논의들 중에서 맨리 톰슨의 해결책과 가장 가깝다는 언급을 한다.³⁶⁾ 그런데 『명제론』에 대한 톰슨의 해석과 댄시의 해석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댄시와 달리 톰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Homer is a poet'에서 'Homer is'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톰슨은 여기에서 'Homer is'가 '호메로스는 실체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실체다'라는 표현과 '존재한다'는 표현을 구분한다. '존재한다'는 표현은 실체인지 속성인지 등을 특정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는 『명제론』에서는 'be'가 '실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범주론』에서 'be'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³⁷⁾

그런데 톰슨의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조금 당혹스러운 점이 있다. 『명제론』에 따라서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실체다'라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지만 『범주론』에 따라서 '호메로스가 시인이

36) Dancy, "Aristotle on Existence", 78-9, n. 48.

37) Thompson, "Aristotle's Square of Opposition", 254-5.

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따라 나온다면, 시인인 호메로스가 실체가 아니라 속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호메로스가 존재한다면, 호메로스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실체이다. 호메로스가 존재하면서 실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면, ‘호메로스가 실체다’라는 것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톰슨의 해결책이란 결국 당시의 해결책으로 환원되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틀 내에서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을 함축하는 것이 된다.³⁸⁾

지금까지 제시된 해결책들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는 것은 마이클 웨딘이 제시한 해결책이다. 『명제론』 11장에 대한 웨딘의 해석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앞 장에서 제시한 해석과 유사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웨딘도 여기에서 ‘부수적으로’라는 말이 『형이상학』 5권에서 이야기하는 표준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소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³⁹⁾ ‘부수적으로’의 특수한 의미로 웨딘이 제시하는 것은 ‘파생적으로’라는 의미이고, ‘부수적으로’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웨딘은 『영혼론』 2권 6장에서 시각의 고유 대상을 논의하는 부분, 『형이상학』 5권 7장에서 ‘부수적으로 있음’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 『분석론 후서』 1권 22장에서 주술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 등을 거론한다. 웨딘이 제시하는 ‘부수적으로’의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부수적으로’의 의미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명제론』 11장 해석의 핵심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별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해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⁴⁰⁾

38) 웨딘은 톰슨이 호메로스가 신화적 존재일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Wedin,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184-5, 194 n.10). 톰슨의 논의 중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톰슨의 진의가 아니다. 톰슨은 호메로스가 시인이라면 호메로스가 존재하고, 만약에 호메로스가 신화적 존재라면 그가 존재하지 않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시인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Thompson, “Aristotle’s Square of Opposition”, 255).

39) Wedin,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181-4.

웨딘의 해결책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그의 『명제론』 11장 해석 자체가 아니라, 그가 이 구절을 어떻게 『범주론』 10장의 구절과 조화시키려고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웨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칭긍정명제에서 존재 함축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이려는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범주론』의 구절, 즉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는 명제가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명제를 함축한다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칭긍정명제의 존재함축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웨딘이 『명제론』 11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있다’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단칭긍정명제의 존재함축에 대한 반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관건은 당연히게도 (a) ‘소크라테스가 아프다’와 (b) ‘호메로스가 시인이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웨딘은 ‘표준적 서술’과 ‘비-표준적 서술’을 구분하고, 존재함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표준적인 서술의 경우만이라고 주장한다.⁴¹⁾ 그리고 나서 웨딘은 (a)는 표준적 서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b)는 비-표준적 서술이기 때문에 (b)가 존재함축의 원칙에 대한 반례처럼 보일 수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a)와 (b)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웨딘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b)가 그 자체로

40)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웨딘이 제시하는 구절들에서 ‘부수적으로’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부수적으로’라는 말이 ‘과생적으로’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 이야기, 즉 ‘부수적으로’라는 말이 ‘그 자체로’를 전제한다는 이야기와 결국 같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과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이다. 웨딘은 『명제론』 11장에서 ‘부수적’, 혹은 ‘과생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구절들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그의 전거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수적으로’라는 말을 『형이상학』 5권 30장에서 명시된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한 증거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41) Wedin,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182-4. 웨딘은 이 구별을 『분석론 후서』 1권 22장의 논의에서 차용한다. 웨딘은 이 맥락에서 ‘표준적(standard)’과 ‘비-표준적(non-standard)’이라는 말을 각각 ‘haplōs’와 ‘kata sumbebēkos’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b)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경우에 문제가 있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⁴²⁾ 웨딘의 결론은 (b)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b)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Homer is a poet’에서 ‘is’는 ‘is a poet’의 부분일 따름으로, 여기에서 ‘is’가 ‘Homer’에 서술되는 것은 ‘is a poet’이 ‘Homer’에 서술되는 것에 파생해서 서술되는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is’가 ‘Homer’에 서술되는 것은 호메로스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웨딘의 해결책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웨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차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Homer is a poet’에서 ‘is’가 ‘is a poet’의 부분일 따름이어서 ‘Homer’에는 단지 파생적으로 서술될 따름이라면, ‘Socrates is sick’에서 ‘is’ 역시 ‘is sick’의 부분일 따름이어서 ‘Socrates’에는 단지 파생적으로 서술될 따름이 아닌가? 웨딘은 (a)는 표준적 서술이고 (b)는 비-표준적 서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b)가 비-표준적인 서술이라는 설명은 제시하면서 왜 같은 이유로 (a)는 비-표준적 서술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의 ‘해결책’이 정말로 『범주론』과 『명제론』의 양립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웨딘이 (b)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b)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가 (a)도 그것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즉, ‘Socrates is sick’에서 ‘Socrates is’가 따라 나오는 것이 ‘Socrates is sick’에 ‘i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웨딘이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a)와 (b)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결국 ‘Homer is a poet’로부터 ‘Homer is’로의 추론이

42) Wedin,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184-7.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⁴³⁾ 만약 웨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입장도 위에서 살펴 본 댄시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며, 결국 동일한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Homer is’가 참이긴 하지만 이것이 참인 이유는 ‘Homer is a poet’에 ‘is’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제론』 11장의 맥락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는 ‘Homer is a poet’에 ‘is’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omer is’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VI. 양립불가능성의 해소

우리는 앞에서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을 해소하려는 지금 까지의 시도들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자의 양립불가능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지금까지 제시된 것들 중에서 보다 나은 해결책들인 댄시나 웨딘의 시도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Homēros estin (Homer is)’에서 ‘estin’을 ‘존재한다(exist)’의 의미로 보았기 때문이다. 호메로스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시인이든 뭐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존재사와 계사의 구별 문제와 별개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칭긍정명제의 존재함축을 인정했는지 여부와 별개로,⁴⁴⁾ 고유명사의 존재함축은 아마도 그 자체로

43) 웨딘은 ‘Homer is a poet’에서 ‘is’가 호메로스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주석에서 자신의 주장이 ‘Homer is a poet’이라는 문장이 호메로스의 존재를 표현하는 ‘is’를 담고 있는 다른 문장을 함축하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한다(Wedin,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194 n.12). 이런 이야기에서 보면 그가 ‘호메로스가 시인이다’로부터 ‘호메로스가 있다’는 추론이 결국에는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44)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당 사각형에서 그가 승인하는 추론 관계들을 고려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칭긍정명제의 존재함축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단칭긍정명제의 존재함축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어디

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명제론』 1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댄시는 (그리고 어쩌면 웨딩도) ‘Homēros estin’을 ‘호메로스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파악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메로스가 시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이것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완전용법’으로 사용된 ‘estin’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을 버리면, ‘Homēros estin’이라는 말을 ‘호메로스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그리스어 화자가 아무런 맥락 없이 ‘Homēros estin’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는 이 말을 그냥 호메로스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들었을 것이다.⁴⁵⁾ 그리고 『명제론』 11장의 맥락을 선입견 없이 살펴보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Homēros estin’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⁶⁾ 앞에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창백한 사람은 창백한데,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죽은’에 덧붙여진 ‘사람’이라는 말에 이미 ‘죽었음’의 반대자인 ‘살아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은 사람’의 예처럼 반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덧붙여진 술어를 단독으로 서술하는 것이 곤란한 예가 있다면서 호메로스의 예를 든다. 그리고 마침

선가 명시적으로 했다거나, 단칭긍정명제의 존재함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거나, 심지어 그가 ‘존재(existence)’라는 정언적 개념을 두고 이러저러한 반성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단적인 있음(haplōs einai)’이라는 개념도 ‘정언적 존재(existence)’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에 대해서는 분명 이러저러한 반성의 작업을 수행했지만, 이것이 후자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45) Cf. 『영혼론』 2권 4장 415b13.

46) 『명제론』의 주석서를 쓴 휘태키는 11장에서 전개되는 논의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Homēros estin’에서 ‘estin’을 ‘살아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C. W. A. Whittaker, *Aristotle's De Interpretatione: Contradiction and Dialectic*(Oxford University Press, 1996), 153-5).

호메로스는 죽은 사람이다. 호메로스가 시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가 갑자기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덧붙여진 술어에 반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단독 서술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esti poiētēs’는 ‘poiētēs’에 ‘esti’가 덧붙여진 것이고, ‘esti’에 ‘시인임’의 반대자인 ‘시인이 아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 누군가가 ‘Homēros esti poiētēs’에서 ‘Homēros estin’, 즉 호메로스가 살아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Homēros esti poiētēs’에서 ‘esti’가⁴⁷⁾ ‘Homēros’에 부수적으로 서술되었을 따름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추론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명제론』의 ‘Homēros estin’에서 ‘estin’이 ‘살아있다’는 의미라면, 혹시 『범주론』의 ‘Sōkratēs estin’에서 ‘estin’은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존재한다’라는 의미여서 양자의 양립불가능성이 해소되는 것일까?⁴⁸⁾ 하지만 ‘Homēros estin’을 ‘호메로스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Sōkratēs estin’도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사실 『범주론』 10장의 맥락에서 보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범주론』 10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건강하다’와 ‘소크라테스가 아프다’가 서로 반대인데,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소크라테스가 einai(be)하지 않는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가 건강하다거나 아프다는 이야기를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⁹⁾

47)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estin’에서 ‘n’은 ‘esti’가 문장 끝에 올 때 발음의 편의상 붙은 것일 따름이다.

48) 우리의 해결책이 이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톰슨의 해결책과 비슷한 것이 될 것이다. 톰슨은 『명제론』에서의 ‘is’는 ‘실체다’라는 의미이고, 『범주론』에서의 ‘is’는 ‘존재한다’는 의미여서 양자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이 해소되는 것은, 두 곳에서 ‘*einai*’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einai*’를 ‘살아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x esti F*’에서 ‘*x esti*’의 추론 성립 여부가 F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F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경우에는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프다’나 ‘소크라테스가 기쁘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고 있다’ 등으로부터는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F가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인 경우에는 이런 추론이 곤란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나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 등으로부터는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제론』 11장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앞에서 ‘훌륭한 구두장이’와 ‘시인임(시인으로 있음)’이 유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구두장이다’로부터 ‘소크라테스가 훌륭하다’는 따라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이다’로부터는 ‘소크라테스가 훌륭하다’가 따라 나올 것이다. ‘*x*는 훌륭한 F다’로부터 ‘*x*는 훌륭하다’로의 추론 성립 여부는 F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훌륭함’과 ‘*einai*’ 사이의 유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x*가 G인 F다’에서 ‘*x*가 G다’로의 추론 성립 여부가 F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어떤 경우에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원칙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원칙은 ‘*x*가 G인 F다’에서 G가 *x*에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경우에는 이런 추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앞에서 ‘F로서의 G’가 따로 있는 경우, *x*가 바로 이 F로서의 G(구두장이로서의 훌륭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G인 F다(*x*가 훌륭한 구두장이다)’라고

49) 『범주론』 10장 13b12-21. 『명제론』의 국역도 이 구절에서 ‘*einai*’를 ‘(살아) 있다’로 번역하고 있다(김진성, 『범주론, 명제론』[이제이북스, (2005), 84].

이야기한다면, 이때 G는 x에 부수적으로 서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이러한 원칙을 einai에 적용해 보자. 우리는 위에서 ‘x esti F’에서 ‘x esti’의 추론이 가능한 경우는 F가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경우이고,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F가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인 경우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F가 일반적인 사실인 경우 ‘F로서의 있음’이 따로 있는데, F가 일시적인 상태일 경우 ‘F로서의 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Sōkratēs esti nosōn(소크라테스가 아프다)’에서 esti는 소크라테스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지만, ‘Homēros esti poiētēs(호메로스가 시인이다)’에서 esti는 호메로스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명제론』과 『범주론』의 양립불가능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제시하는 원칙에 의해서 깔끔하게 해소되는 것이다.

VII. 계사와 존재사, 그리고 ‘비정언적 존재사’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사와 존재사를 구별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Homēros esti poiētēs’에서 ‘Homēros estin’이 추론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양자에서 ‘esti’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기에서 계사와 존재사를 구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Homēros estin’에서 ‘esti’가 ‘존재한다(exist)’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누군가가, 동물이 주어로 올 때는 ‘존재한다’는 말이 바로 ‘살아있다’는 뜻이어서 호메로스가 주어인 상황에서 ‘살아있다’는 말과 ‘존재한다’는 말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 장의 논의만 보더라도 ‘존재한다’와 ‘살아있다’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⁰⁾

기사와 존재사를 구분할 때의 ‘존재’라는 말은 영어의 ‘existence’의 번역어이고, 영어에서 ‘existence’는 정언적, 혹은 무조건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My son exists at home now”처럼 특정 장소에 국한해서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특정 성질이나 상태에 국한해서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예컨대 영어로 ‘exists beautiful’ 같은 표현은 가능한 표현이 아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집에 국한해서 존재를 주장하듯이) 아름다움에 국한해서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어 자리에 올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existence는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박탈되어 뼈대만 남아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칸트는 existence는 술어가 아니라는 유명한 주장을 하고, 오늘날 논리학자들은 existence를 (일반 술어가 아니라) 양화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 특히 현대 영어권의 논리학자/철학자들 사이에서, existence가 그런 박탈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특정 장소나 성질이나 상태에 국한해서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언적으로 사용된 존재개념은 정언적 존재개념과 달리 다양한 구체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아들이 집에 있다’라고 할 때 ‘있음’은 이러저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살아있다’는 말에서 ‘있음’은 이러저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진다.

눈치 빠른 독자는 지금의 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8권 2장의 구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지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놓여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50) 아리스토텔레스에서 to be는 to be so-and-so라는 유명한 주장을 한 오웬도 ‘존재한다’와 ‘살아있다’가 일상 어법에서 혼동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둘이 같은 의미일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 G. E. L. Owen, “Aristotle on the Snares of Ontology”,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R. Bambrough(Routledge and Kegan Paul, 1965), 78-9.

얼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굳어있음을 나타낸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다.⁵¹⁾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einai*가 *existence*를 의미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어가 ‘확대경의 오류(the fallacy of the magnifying glass)’라고 부른 오류를 범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⁵²⁾ ‘확대경의 오류’란 서로 다른 문장들의 서로 다른 성격들이 단일한 하나의 단어의 애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지방이 존재한다’, ‘얼음이 존재한다’, ‘사람이 존재한다’, ‘3이 존재한다’, ‘아버지가 존재한다’, ‘고통이 존재한다’ 등에서 ‘존재(*existence*)’가 이들 문장들 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존재(*existence*)’라는 개념은 내용이 모두 박탈당해서 뼈대만 남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장들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문장들의 성격 차이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주어가 되는 서로 다른 것들의 서로 다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einai*가 정언적인 존재(*existence*)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정언적 존재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대경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언적인 존재 개념은 맥락 의존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하면 그것은 맥락과 무관하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언적 존재 개념은 언제나 맥락 의존적이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맥락들을 크게 10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Homēros estin*’과 같이 보어가 없는 문장에서 사용된 ‘*esti*’, 소위 ‘완전 용법’에서의 ‘*esti*’가 존재사가 아닌 것처럼, ‘*Homēros esti poiētēs*’처럼 보어가 있는 문장에서 사용된 ‘*esti*’, 소위 ‘불완전 용법’에서의 ‘*esti*’도 단순한 계사가

51) 『형이상학』 8권 2장 1042b25-8.

52) Dancy, “Aristotle on Existence”, 64.

아니다. 현대 영어에서, 특히 영어권 논리학자/철학자들 사이에서, *existence*가 의미가 모두 박탈당해서 뼈대만 남은 개념이라면, 계사로서의 ‘is’는 의미가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뼈대도 제대로 남지 않아서 도대체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자연언어를 인공언어로 기호화할 때 계사로서의 ‘is’는 아예 흔적을 남기지도 못한다.⁵³⁾ 따라서 ‘Homer is a poet’, ‘Homer is a man’, ‘Homer is sick’ 등에서 ‘is’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고려할 수도 없다.

이에 비해서 여기에서도 *einai*가 비정언적 존재 개념이라면 *einai*가 서로 다른 문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다양한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 우선 가장 표준적인 사용부터 살펴보자.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때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그게 무엇인지(*ti esti*)’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그 무엇이 실체를 나타낸다. 하양이 있다고 해 보자. 하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시각경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색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양이 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그게 무엇인지(*ti esti*)’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그 무엇이 질을 나타낸다. 다른 범주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⁵⁴⁾

여기에서 ‘*ti esti*’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혹은 그게 무엇인지’라고 이중적으로 번역했듯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애매성을 가진다. 사실 이와 동일한 방식의 애매성이 위에서 이야기한 『형이상학』 8권 2장의 구절에도 등장한다. 우리가 ‘얼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굳어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번역한 구절은 ‘얼음이 있다는 것은’을 ‘무엇인

53) 예를 들어, ‘Homer is a poet’을 Fa로 기호화하면 ‘is’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남아있지도 않게 된다.

54) 『변증론』 1권 9장 103b27-39.

가가 얼음이라는 것은’으로 대치해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애매성은 일단 소위 ‘완전 용법’이라는 것과 ‘불완전 용법’이라는 것의 대비가 그리스어에서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⁵⁾ 그래서 ‘ti esti’를 지금 이야기한 애매성을 고려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무엇으로 있는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은 실제로 있고, 하양은 질로 있고, 1 미터는 양으로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용법에서의 einai도 다양한 종류의 비정언적 존재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호메로스는 시인이다’, ‘호메로스는 사람이다’, ‘호메로스는 아프다’ 등의 문장을 생각해보자. 이들 중에서 ‘호메로스는 사람이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금 이야기한 ‘가장 표준적인 방식의 서술’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호메로스는 시인이다’나 ‘호메로스는 아프다’에서 einai는 기본적으로 ‘호메로스’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나 ‘아프다’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아프다’와 연결된 einai는 질로서의 있음을 나타내고, ‘시인’과 연결된 einai는 (아마도) 관계로서의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⁵⁶⁾ 그런데 ‘호메로스의 있음’은 살아있음이고 ‘질의 있음’은 이러저러한 것을 겪음이라면, 여기에는 의미 중첩이 있다. 어떠한 것을 겪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전제하니 말이다.

55) 레슬리 브라운은 바로 『형이상학』 8권 2장의 구절을 인용하면 그러한 주장을 한다. Brown. “The Verb ‘To Be’ in Greek Philosophy”, 235-6.

56) ‘시인’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체, 질,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이므로 다른 가능성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 중에서 우선 실체는 아니다. 실체는 궁극적으로 기체로 놓일 수 있는 것들과 그것들의 유들인데, 시인은 궁극적으로 기체로 놓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의 유도 아니다. 질 범주에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 등이 예로 등장하는 것(『범주론』 8장 9a14-22)에 근거해서 시인도 질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는 그리스어로 ‘-kos’ 어미가 붙는 말들로서 달리기나 권투의 자질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시인’은 시짓기의 자질이 있음을 의미한다기보다 시를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면 시인은 시작품에 대해서 시인인 것이고, 이렇게 보면 ‘시인’을 관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시인의 있음’은 시작품들의 제작자임이라면, 이것은 살아있음과 반드시 의미중첩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듯이 ‘시인이다’에서 einai는 호메로스에게 부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논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einai가 완전 용법으로 사용될 때나 불완전 용법으로 사용될 때나 할 것 없이, 이것이 계사나 존재사가 아니라 비정언적 존재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간주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잘 설명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거의 『명제론』 11장에 국한시켰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구절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논의하도록 하자.⁵⁷⁾ 우선 서두에서 언급한 『소피스트적 반박』의 구절⁵⁸⁾은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있지 않은 것이 생각될 수 있다’는 구절에서 einai는 기본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와 연결될 것이고, 주어인 ‘있지 않은 것’에는 오직 부수적으로만 서술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분석론 후서』 2권 1장에는 켄타우로스나 신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다.⁵⁹⁾ 이 이야기는 완전 용법의 서술이 불완전 용법의 서술보다 우선성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우리의 비정언적 존재 개념에 대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있어야 그가 아플 수 있다는 『범주론』 10장의 구절을 살펴보았다. 구조적으로 『분석론 후서』 2권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범주론』 10장의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단적으로 있음(einai haplōs)’ 자체가 비정언적인 존재개념이라는 것을 보았다.

『명제론』 3장에는 ‘einai’가 불완전 용법으로 사용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57) 각 구절들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각각 독립적인 논문이 필요할 것이다.

58) 『소피스트적 반박』 5장 21a25-8.

59) 『분석론 후서』 2권 1장 89b32-5; cf. 2권 7장 92b4-11.

그것을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사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einai*가 불완전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합된 것들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종의 결합을 덧붙여 나타낸다(*auto men gar ouden esti, prossēmainei de sunthesin tina, hēn aneu tōn sugkeimenōn ouk esti noēsai*)”라고 이야기한다.⁶⁰⁾ 사실 오늘날 ‘계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copula’가 이 구절에 등장하는 ‘*sunthesis*’에 대한 라틴어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계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정언적 존재 개념은 언제나 맥락 의존적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이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einai*는 의미가 완전히 박탈된 계사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표준적인 서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존재적 의미가 가장 두드러졌던 예들에서도 주어와 술어를 빼고 *einai*만 남겨 놓으면 그것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제론』 3장의 구절은 얼마든지 우리의 비정언적 존재사 해석의 지지근거로도 삼을 수 있는 구절이다.

VIII.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와 계사를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생각할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명확하게’에 방점이 놓여야 한다. 우리의 논의는 ‘명확한 구분’을 기준으로 놓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사와 계사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작업들이 후대에 존재사와 계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논의에서도

60) 『명제론』 3장 16b23-5.

간접적으로 보여졌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밝혔듯이, ‘존재(existence)’는 정언적인 개념이고, 계사도 정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개념의 발전사 측면에서 보면 비정언적인 개념이 먼저 오고, 그것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정언화를 거치면서 정언적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플라톤이나 파르메니데스, 뒤로는 크뤼시포스나 고대 후기 주석가들이 모두 *einai* 개념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정언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언화 작업의 결과물들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의 정언화를 부추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existence)’ 개념이나 계사로의 정언화는 각기 *einai*가 정언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 하나일 따름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에게서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의 *einai* 정언화 작업이 수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 더 필요한 일이지만, 필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정언적인 존재 개념이 아비첸나나 아베로에스 정도에서 확립되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정언화의 기틀이 본 논문에서 논의했던 종류의 문제들에서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언적인 존재 개념을 확립한 아비첸나와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그보다 앞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einai*의 정언화 작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일차 문헌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

Minio-Paluello, L.(1949), *Categoriae et Liber De Interpretatione*, OCT.

Ross, W. D.(1963), *Topica et Sophistici Elenchi*, OCT.

_____ (1964). *Analytica Priora et Posteriora*, OCT.

_____ (1924), *Metaphysics*, vol 1&2, Oxford: Clarendon Press.

아리스토텔레스 번역 및 주석

김재홍(2007), 『소피스트적 논박』, 한길사.

_____ (2008), 『변증론』, 길.

김진성(2005), 『범주론, 명제론』, 이제이북스.

_____ (2007), 『형이상학』, 이제이북스, 2007.

조대호(2012), 『형이상학』 1-2, 나남, 2012

Ackrill, J. L.(1963), *Aristotle: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Clarendon Press.

Kirwan, Christopher(1993), *Aristotle: Metaphysics Γ, Δ, and E*,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2. 이차 문헌

강성훈(2012), 「고대 그리스어 ‘einai’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 비정언적 존재 개념으로서의 ‘있음’과 ‘einai’」, 『서양고전학연구』 48, 77-115.

Bäck, Allan T.(1987), “Avicenna on Existenc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5, no. 3, 351-67.

- _____ (2000), *Aristotle's Theory of Predication*, Brill.
- Brown, Leslie(1994), "The Verb 'To Be' in Greek Philosophy: Some Remarks", in S. Everson (ed.), *Language. Companions to Ancient Thought*: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2-36.
- Dancy, Russell(1986), "Aristotle on Existence", in Simo Knuuttila and Jaakko Hintikka (eds.), *The Logic of Being*, Kluwer Academic Publishers, 49-80. (Originally in *Synthese* 54, 1983, 409-442.)
- Jacobs, William(1979), "Aristotle and Nonreferring Subjects", *Phronesis* 24, 282-300.
- Kahn, Charles H.(2009), *Essays on 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 Malcolm, John(2006), "Some Cautionary Remarks on the 'Is'/'Teaches' Analogy",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31, 281 - 96.
- Mill, John Stuart(1882[1843]),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8th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 Owen, G. E. L.(1965), "Aristotle on the Snares of Ontology", in R. Bambrough (ed.),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Routledge and Kegan Paul, 69-95.
- Rijk, L. M. de(2002), *Aristotle: Semantics and Ontology*, vol 1&2, Brill.
- Thompson, Manley(1953), "On Aristotle's Square of Opposi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62, 251-265.
- Wedin, Michael V.(1978), "Aristotle on the Existential Import of Singular Sentences", *Phronesis* 23, 179-196.
- Whittaker, C. W. A.(1996), *Aristotle's De Interpretatione: Contradiction and Dialectic*,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ristotle claims in *De Interpretatione* ch. 11, that “Homer is” does not follow from “Homer is a poet”. This could be taken as evidence that he clearly distinguishes the copula and the existential predicate. But in *Categories* ch.10, he implies that “Socrates is” does follow from “Socrates is sick”, and it is problematic how this squares with the passage in *De Interpretatione* ch. 11. Even the better ones among the attempts to resolve this incompatibility have failed because they regard the “is” in “Homer is” as expressing categorical existence. The alleged incompatibility disappears if we understand that the “is” or the Greek word “esti” means “is alive” in this context. From the general fact that Homer is a poet, we cannot infer that he is alive. In contrast, to be in the state of being sick, one has to be alive. The reason Aristotle offers for the difference is that the “is” in “Homer is a poet” is predicated of Homer only derivatively. If we assume that the verb “einaí” expresses a kind of non-categorical existence both in complete sentences and incomplete sentences, Aristotle’s claims can be best explained.

【Keywords】 copula, existential predicate, *De Interpretatione* ch. 11, *Categories* ch. 10, non-categorical existence

논문 투고일: 2013. 10. 03

심사 완료일: 2013. 10. 14

게재 확정일: 2013. 10. 14